

정부에서 강행한 소위 '쌀협상비준안'이 국회 통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전면개방화에 대비하여 10년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농민,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 없이 '농업으로부터의 정책적 철수'를 감행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10년간의 '관세화유예'를 얻는 대신, 의무적 수입물량'을 10년 동안 늘려 왔다. 그리고 올해 다시 향후 10년간 '쌀관세화 유예'를 얻어내면서, '10년후 자동관세화'와 '의무적 수입물량의 확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를 쌀농사에 대한 전면포기로 이해하고 있다. 의무적 수입물량은 쌀값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는데다, 우리농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에 쌀농사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로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지금 정치권과 정부는 쌀 문제를 농민생존권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농업을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본다. 우리 농민단체는 쌀문제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 즉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식량주권

의 문제 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처리하고 있다. 쌀 문제는 농업의 기반에 관한 사안이다. 이는 유사시 식량주권이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컴퓨터와 자동차'를 잘 팔면 쌀과 식량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선순환 구조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식량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선진국의 동향과

는 다른 방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 일수록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인 유지'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듯 쌀문제가 단순히 농민들만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생존과 장기적인 국가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은 기반이 영원히 사라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농업의 가치 다시 생각하자



불자 세상보기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쌀은 생활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컴퓨터나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농지가 개발지로 바뀌고, 농민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농지에 투기자본만 몰려다니게 될 게 뻔하다.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쌀과 컴퓨터의 부가가치가 역전되는 상황은 너무나 뻔히 내다보이는 미래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에 대해 불자들이 몇 가지의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들에서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라는 입법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25%에 끼리'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식량중속국이 식량자급률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자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교계의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종교계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다면 학교나 회사, 노동조합으로 확산돼야 한다. 필자가 일하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몇몇 사찰에서 '친환경공공미음'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운동'이 꾸준히 전개해 나갈 때, 우리 농촌의 회생가능성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간화선 수행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조계종이 종단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재가자와 대학생 등 계층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총 10품의 단계로 제시해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국불교가 700여 년 동안 간화선을 승가의 수행 전통으로 계승하면서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것은 간화선 수행이 우리의 풍토에 적합하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오늘날 간화선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은 종단차원에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한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은 간화선 대중화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간화선 수행 지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지도할 현장 지도자를 어떤 기준에서 초빙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어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대중들에게 간화선의 의미를 설명하여 신심을 일으

간화선 프로그램과 지도자

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학문적 소양을 가져야 한다. 간화선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기본교학과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이해와 신심을 심어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간화선 수행을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리 선학에 대한 높은 학문지식을 가졌더라도 '실참실수(實參實修)' 경력이 없으면, 자신에 대한 확신도 미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심을 줄 수 있는 힘도 미약하다. 아무리 기본을 지도한다 하더라도 4안기 이상을 성만한 수좌가 죽비를 쥐어야 한다.

셋째, 심리상담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계를 해결하고 경쾌해 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물론 고차원적인 접근은 단계별로 시행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수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상담치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훌륭하더라도 지도자의 소양이 부족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간화선 지도자의 선행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폭력

경을 많이 읽다 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며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법구비유경>

요즘에는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겁이 날 경이다. 며칠 전 버스 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집에 가던 여고생을 끌고 가 폭행한 뒤 교복과 책가방을 빼앗아 불태우고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한 달 전쯤에는 교실에서 힘이 센 학생과 약한 학생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반 아이들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TV로 방영돼 충격을 주었다. 힘이 약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연이었고 있는데도, 다른 학생들은 유유히 즐긴 뿐이다. 이쯤이면 교육이라는 말의 무색함을 떠나 인간 본성에 의문을 갖게 할 정도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자고 일어나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소년 폭력 문제.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꽤 많이 무뎠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식의 무감각이 청소년 폭력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간의 본성을 보는 데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다. 하지만 불교는 인간의 심성을 그 어느 쪽에도 치우쳐 보지 않는다. 마치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백지로 보는 것이다.

이제는 종교적 감각의 교육을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청소년들에게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찾아내도록 이끄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 불교부터 문제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

■ 한명우(주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윤리를 말한다

'현대불교' 553호 13면에 실린 '배아 줄기세포 연구' 관련 학술토론회 기사를 읽고 수행자로서 좀더 적극적인 불교적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던 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불교의 세계관은 많은 인(因)과 연(緣)이 조건에 의해 만나 서로 관계하며 과(果)를 생산하는 연기법에 입각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처님은 연기법에 입각한 최고의 지혜인 중도의 실천을 갈파했다.

따라서 아직 불법을 모르는 우매한 중생이 아닌 불자라면 법에 따른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교의 논리이자 줄기세포연구는 과연 올바른 연기일까?

불교의 인간관에 비춰 보면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들의 논점처럼 배아줄기는 유정(遺精·살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될 가능성을 가진 생명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에서처럼 이러한 존재를 이용하는 것은 살생이므로 비윤리적이라는 견해는 극단적이다. 더구나 최근의 논란을 보면 원론적인 부분만을 놓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불자라면 당연히 불교의 인간

관 뿐 아니라 불교의 세계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인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의 의의와 과 역시 유심히 살펴야 한다.

지금의 생명윤리 논란은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 세포를 어디에 사용하며 이것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회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난자는 정자와 수정되어야만 인간이 된다. 많은 난자들중에 한 두 난자를 제외하면 모두 자연사할 운명인 것이 현실이다. 난자를 가진 인간이 난자에 생명성을 부여할 의지가 없다면 자연사할 난자를 더 훌륭한 가치의 존재로, 인위적인 연기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교의 논리요, 불교가 권장하는 가치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인자(因者)를 살생하는 죄를 범하려다도 사람을 살리는 복을 지을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훌륭한 사회적 윤리다. 부처님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무수한 공덕을 지었다.

난자에게도 이러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불교의 생명관이며 윤리관이며 중도의 실천이라고 본다.

인을 살생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복을 짓기 위해 법밖없이 노력하는 황우석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홍범(경기 광명시 보현사)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정신 못 차린 '서울시장'

'서울불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명박 서울시장에 최근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청계천'이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를 사고 있다.

시민들과 시 관계자, 건설사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청계천은 하나님이나 기독교 신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는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장에게 청계천 복원 공사에 들어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세금과 주변상인들의 불편, 노점상들의 생계위협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종교간 평가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가 화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대 종교인 불교가 무관심하거나 안일해서라는 주장이 기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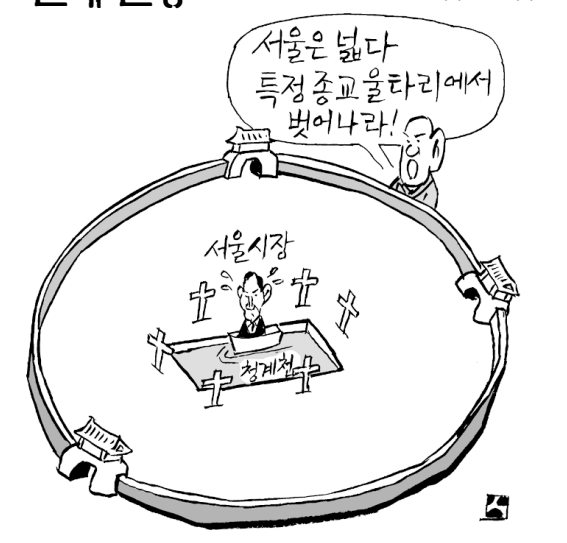
이는 불교계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 서울시장의 공격적인 망각한 종교편향행위를 꾸짖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명박 시장의 종교편향 망언사태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을 수 없다.

포항 성시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포항 정장식시장의 경우, 지역 주지사님들이 규탄법회를 병행으로 결국 정장식 시장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발 이제는 불교인들이 먼저 눈을 부릅뜨기 바란다.

결망(웃디뉴스)

'연대' 민명

심민섭



대한불교조계종 제 14 교구

백양산 선암사 주지 원범스님 진산식

모시|는|글

귀의상보호음고,

입동지절 맑은 날에 천년고찰 백양산 선암사에서 원범스님 주지진산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한 길을 하시어 소중한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와 축하로 깨어 있는 도량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12월 4일(일요일)
- 장 소 : 선암사 대웅전 앞

1부 11:00 ~ 12:00 법요식 / 대웅전 앞
2부 13:00 ~ 14:00 선암사 주민잔치 한마당 / 주자장 무대

선암사 주민잔치 한마당

선암사 주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한마당 <초청가수최진희, 이정>



수희 동참 바랍니다

이번 진산식에는 화환이나 화분 등 축하용품은 정중히 사절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에게 그 정성을 나누고자 하오니 자비로 접수하시고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 새마을금고 1527-09-006327-9 (예금주:선암사)

• 문의전화 : 선암사 종무소 051)808-619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지침에 따라 객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당일 임시주자장은 동양초등학교 중학교로 지정되어 있으오니 지정된 주자장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백양산 선암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614-093)부산시 진구 부암3동 628번지 전화 051) 808-6196